

너무나 멋진 멀트노마 폭포

2020년 새해가 시작 되며 비가 많이 온다. 물론 내가 살고 이는 이 곳이 다른 곳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한 달 같이 비가 많이 온 것은 오랜만이다. 한 달 동안 4-5일 만 해(Sun)가 보였다고 한다.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. 하지만 오랜 만에 친구 목사가 동부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멀트노마 폭포(Multnomah Fall)에 가게 되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. 그 폭포가 그동안 수 십 번을 가 보았던 폭포가 아이였기 때문이다.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멀리서도 크게 들렸다. 가까이 가보니 엄청난 양의 물이 구름을 가르며 저 하늘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. 구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폭포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. 그날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것이다. 당연한 이유는 비가 그동안 많이 왔고 또한 그 때도 많은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

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비가 많이 오는 줄도 모르고 한 참 동안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진을 계속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.

비가 너무 오래 와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세상에는 그 비로 인하여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는 일들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.

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와 같은 은혜를 늘 주시지 않는가?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더욱 부어달라고 찬송하지 않는가?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를 늘 부어주셔서 체험하며 살다가 보니 은혜의 귀함과 감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우리가 결단코 거부할 수도 또한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.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다.

하나님은 “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 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“ (시편 78편 23-24절)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신 것을 말씀하신다.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과 충만하심이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주신다. 우리는 그것을 힘껏 받아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.

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. 그러한 면에서 비가 많이 오는 서북미에서 사는 것도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된다.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또한 저녁에도 비처럼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. 그길 만이 허무함과 외로움 그리고 괴롭고 힘든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길인 것이다.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"믿음의 길"이다.

멀트노마 폭포는 비가 올 때 가 보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. 물이 많아야 절경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.